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Readers,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our magazine's column A Better Way to Live. Your support has allowed the column to grow steadily, gaining widespread recognition. We appreciate the encouragement you have shown throughout its run. However, we would like to share an important update. Due to the writer's recent health problems, the column will take a one-month break. This time has been set aside to allow the writer to recover.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during this pause. The column will return next month with renewed energy and fresh perspectives.

① 칼럼의 휴재를 공지하려고

② 잡지의 정기 구독 혜택을 안내하려고

③ 잡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조사하려고

④ 건강 칼럼의 신설을 홍보하려고

⑤ 칼럼 작가를 모집하려고

독자 여러분께,

저희 잡지의 칼럼 A Better Way to Live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 칼럼은 꾸준히 성장하며 폭넓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재 중 보내 주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가의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해당 칼럼은 한 달간 잠시 쉴 예정입니다. 이 기간은 작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휴재 동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칼럼은 다음 달에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관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ving been guided to a small desk surrounded by dividers, I sat. It was my first day. Everyone in the office seemed busy and no one even looked at me. It felt as if no one knew I was there. I wanted to ask someone a question, but there wasn't anyone I could possibly talk to. I felt invisible. After lunch, I returned to my desk and found a bouquet of flowers on my desk. Then, a coworker at the desk next to mine came over. She said she couldn't greet me earlier because of an urgent issue that morning. She added that she was excited to work with me. She introduced me to the rest of the team, and I received warm greetings from everyone. Her kindness made me feel truly accepted.

① isolated → welcomed

② joyful → embarrassed

③ thrilled → disappointed

④ anxious → indifferent

⑤ relieved → sorrowful

칸막이로 둘러싸인 작은 책상으로 안내되어 나는 착석했다. 나의 근무 첫날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바쁜 것 같았고, 심지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없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 내 책상으로 돌아와서, 내 책상에 있는 꽃다발을 발견했다. 그때, 내 옆 책상의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날 아침 급한 문제 때문에 더 일찍이 나에게 인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나를 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나는 모두에게서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친절은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해 주었다.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argue that if science is embedded in culture and bound up with art and philosophy, if it is a human activity, then this undermines science's claims to be genuine knowledge. At best, science is no better than religion, just another practice with its own subjective methodology. But why say this? Just the opposite is true. In order to hit the target with my bow and arrow, I need to do something, to take aim and concentrate. The fact that I am a being with a body, embedded in a culturally rich situation, is no obstacle to my sometimes succeeding. In fact, it is that embedding that supplies me not only with the physical means — the bow and the arrow, and the training — but also with the motivation to hit the target in the first place. Science and perception too are similarly human activities that aim at secure knowledge of the world.

* embed: 파묻다

① 과학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을 지식 추구의 기반으로 봐야 한다.

② 과학적 진리에 도달하려면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③ 지식 탐구를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④ 객관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을 배제해야 한다.

⑤ 인간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과학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만약 과학이 문화에 파묻혀 있고 예술과 철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즉 만약 그것이 인간의 활동이라면, 이것은 과학이 진짜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잘 해야, 과학은 종교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으며, 그저 그것만의 주관적인 방법론을 가진 또 다른 관습일 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정확히 그 반대가 참이다. 나의 활과 화살로 과녁을 맞히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즉 겨냥하고 집중해야 한다. 내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즉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때때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다. 사실, 나에게 물리적인 수단인 활과 화살, 그리고 훈련뿐만 아니라 애초에 과녁을 맞히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바로 그 파묻혀 있는 상태이다. 과학과 지각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겨냥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21. 밑줄 친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rilliant musician can in fact be an innovator without strictly speaking being an inventor. In such cases, those who expect "great discoveries" will be disappointed. Let there be no doubt: the eager need for novelty, so characteristic of the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involves the idea that a musical act is a thing, in which case, music is no more than technique, technique alone. And just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 — with each automobile or kitchen appliance show introducing what is new and improved in comparison to last year's — so never-ending progress shall be the law of music. Farther, faster, more powerful! In this arms race, each new music,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s, offers itself as the last thing in modernity; and each musician, forcing predecessors into the category of the unfashionable and outmoded, claims the patent on the invention. In an era where pastich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have become quasi-universal, musicians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 pastiche: 모방작 ** quasi - universal: 준(準)보편적인

① reproduce the signature style of master composers faithfully

② admit that the quality of artistic output is not subject to temporal factors

③ embrace the prevailing focus on technically demonstrable novelty and formal progress

④ question the impact that music has on maintaining aesthetic standards and cultural identities

⑤ distinguish the fundamental independence musicians have on their craft from the principles of science

뛰어난 음악가는 엄밀히 말해 발명가가 아니고서도 사실 혁신가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대한 발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 두자면, 점점 고조되는 현대주의적 경매의 전형적 특징인 새로움에 대한 열렬한 욕구는 음악적 행위가 하나의 '사물'이라는 관념을 수반하며, 이 경우 음악은 기교에 불과한 것, 단지 기교일 뿐이다. 그리고 각 자동차나 주방용품 전시회가 작년과 비교하여 무엇이 새롭고 개선되었는지 소개하고, 기교가 무기한의 완성 과정의 결과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끝없는 진보가 음악의 법칙이 될 것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 군비 확장 경쟁 속에서 각각의 새로운 음악은, 이전 것의 기록을 깨트리며, 자신을 현대성의 최신형으로 내놓고, 각각의 음악가는 전임자를 유행에 뒤떨어지고 구식인 범주로 몰아넣으며, 그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다. '과학적 연구'의 모방작이 준(準)보편적이 된 시대에, 음악가는 자신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often express problems interrogatively. Instead of commanding you to find my keys, I might ask you where they are. But "Where are my keys?" is a problem hiding in question clothing. To see this, consider some possible answers. "Not on the surface of the sun" truthfully gives the location of my keys, as does, "Wherever your keys are." Nonetheless, these are bad answers, and they are bad precisely because they do not help me achieve the goal — leaving the house, opening a locked door — to which keylessness constituted an obstacle. Consider the reply "They are in your room." This is a good reply if you have a small, tidy room, but if your room is large and messy, you might need the location more clearly specified. Whether or not it is a good reply is a function of whether or not it solves the problem. Indeed, "Here, take mine" could be a good reply to "Where are my keys?" if what is needed is to leave the house quickly. A good reply doesn't need to offer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re are my keys?" as long as it resolves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 interrogatively: 의문문의 형태로

① 의문문의 형태로 요청할 경우 의미 전달이 약해질 수 있다.

②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더 신뢰를 얻는다.

④ 정확한 의도 전달에는 간결한 형태의 질문이 효과적이다.

⑤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좋은 답이다.

우리는 자주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여러분에게 내 열쇠를 찾으라고 명령하는 대신, 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열쇠 어디에 있어?'는 질문이라는 덮개 속에 숨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대답을 고려해 보라. '태양의 표면에는 없어.'는 내 열쇠의 위치를 사실대로 알려주며, '네 열쇠가 있는 곳 어디든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안 좋은 대답이며, 정확히 왜냐하면 열쇠가 없음이 장애물이 되었던, 집을 떠나는 것, 잠긴 문을 여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좋지 않다. '그것은 네 방에 있어.'라는 답변을 고려해 보라. 여러분이 작고 잘 정돈된 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답변이지만, 여러분의 방이 크고 지저분하다면,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이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닌지와 함수 관계에 있다. 실제로, 만약 필요한 것이 집을 빨리 떠나는 것이라면, '여기, 내 거 가져가.'는 '내 열쇠 어디에 있어?'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좋은 답변은 집을 떠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내 열쇠 어디에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ng employees agree that AI has more positive impact with the dynamics of the workforce, though there are major concerns on job loss and being left behind. While AI has the potential to automate certain jobs, it is also giving rise to new career opportunities and demands.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has led to a sudden increase in the need for professionals who can effectively manage and get the most out of AI systems. Moreover, soft skills such as innov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the capability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 gaining greater recognition. In the age of AI, continuous learning has become an essential quality for professionals in the workplace. The ever-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necessitates employees to consistently update their skills, acquire new knowledge, and adapt to the dynamic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Only reskilling and adaptability can help resolve the workforce of the future. Implanting a culture of ongoing learning by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that encourages continuous learning and skill development should be a main priority for each organization.

① need for ongoing learning at the workplace in the age of AI
② rise of ethical concerns regarding AI-driven job automation
③ significance of soft skills in resolving workplace conflicts
④ risk of relying on AI as a tool for retraining employees
⑤ limitation of adopting AI systems in workforce planning

젊은 직원들은 AI가 노동 인력의 역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실직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AI가 특정 직업을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직업 기회와 수요를 생기게 하고 있다. AI 기술 적용의 증가는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학문 간 협력을 위한 역량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더 큰 인정을 받고 있다. AI의 시대에, 지속적인 학습은 직장에서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적 지형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자기 기술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 환경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할 것을 필요로 한다. 오직 재교육과 적응력만이 미래의 노동 인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학습의 문화를 심어 주는 것은 각 조직의 주요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omething too domesticated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it evaporates altogether — we just take it for granted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And perhaps translation is an art especially well suited for this task: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accumulates imitations and clichés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that may well bury it, translations of that work free it from its stodgy fame and make the stone stony again, precisely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A bad text is one that, in Berman's terms, lacks "native strangeness" — and when you translate it, nothing happens. The translation of a true work of art is significant because it reinforces and enhances qualities already inherent in it: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but the mode of existence by which a work reaches us as étrange" (translated by Heyvaert as "foreign," but I'm not sure about that). As Wilson put it, translation makes the work "seem more strange, and newly strange."

* cliché: 상투적인 표현 ** stodgy: 따분한

① Translation's True Calling: Restoring Vitality of the Unfamiliar

② Is Refining the Original Tone Always Better for Accessibility?

③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

④ The Role of Translation in Distributing Regional Literature

⑤ Overcoming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너무나 길든 것은 실제로 더 다가가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모두 증발해 버리며, 우리는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번역은 이러한 과업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인데,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방작과 상투적인 표현과 많은 양의 학술 연구와 분석과 학습 가이드를 축적하고 이는 그것을 묻어 버릴 수도 있는 반면, 그 작품의 번역본은 정확히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그 작품을 자신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 안 좋은 텍스트란 Berman의 용어로 '본래의 낯섦'이 결여된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번역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은 그것이 작품 안에 이미 내재된 자질을 강화하고 높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번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한 작품이 우리에게 '낯선 것'(Heyvaert에 의해 '이질적인'으로 번역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으로 다가오는 존재 양식이다." Wilson이 말했듯,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설게, 그리고 새롭게 낯설게 보이도록' 한다.

26. Douglass Hought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Douglass Houghton was an American geologist and physician born in New York in 1809. He enrolled in the Rensselaer Scientific School, where he earned a degree in 1829. Amos Eaton, a former teacher of Houghton, offered a position as an assistant professor for chemistry and natural history to Houghton in 1830. That same year, he was recommended by Eaton to travel to Detroit, where soon he became a popular science lecturer. While pursuing his academic career, Houghton also studied medicine and earned his license in 1831. His career reached a major turning point in 1837, when he was appointed Michigan's first State Geologist. In 1842, Houghton was elected as Mayor of Detroit, a position he was at first reluctant to accept. Upon hearing the advice of friends, he accepted the mayor's position and served two terms. His contributions to science and public service left a lasting impact on Michigan's development.

① Rensselaer Scientific School에서 학위를 받았다.

② Detroit에서 인기 있는 과학 강연자가 되었다.

③ 1831년에 면허를 취득했다.

④ Michigan 최초의 주(州) 지질학자로 임명되었다.

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시장직을 거절했다.

Douglass Houghton은 1809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의사였다. 그는 Rensselaer Scientific School에 입학하여 1829년에 학위를 받았다. Houghton의 전(前) 스승인 Amos Eaton은 1830년에 화학과 자연사 조교수직을 Houghton에게 제안했다. 같은 해, 그는 Eaton에게서 Detroit에 갈 것을 추천 받았고, 그곳에서 그는 곧 인기 있는 과학 강연자가 되었다. 학문적 경력을 쌓아 나가는 동안, Houghton은 또한 의학을 공부했으며 1831년에 면허를 취득했다. 그의 경력은 1837년에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는데, 그해 그는 Michigan 최초의 주(州) 지질학자로 임명되었다. 1842년에, Houghton은 Detroit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그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직위였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그는 시장직을 받아들였으며 두 차례 임기를 수행했다. 과학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의 공헌은 Michigan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다.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Darwin understood that since inheritance is conservative, it is in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s, ① producing many highly similar but variable offspri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He further recognized that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organism ② imply reproductive overrun, with organisms routinely producing more offspring than there are resources to support them. The need to survive implies that the capacity for using necessary resources must complement the opportunity to use ③ them. But needs and opportunity do not perfectly match. Inheritance produces the capacities for exploiting the surroundings, but in a way that is indifferent to the surroundings. Offspring cannot anticipate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④ which they find themselves, much less alter themselves in ways that are suitable to any changes in those conditions. While it is true that organisms can express some amount of flexibility in their form and function in response to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these adjustments are ⑤ minor compared to the constraints of inheritance. As a result, not every living thing can live everywhere.

* offspring: 자손 ** exploit: 이용하다

다윈은 유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기체의 본성은 자신을 주변 환경에 강요하는 것에 있고, 상황의 성질과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면서도 변이성이 있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는 또한 유기체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이 과잉 생산을 수반하며, 유기체들이 (그들의) 자손을 부양할 자원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통상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생존의 필요성은 필수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과 기회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유전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만들어 내지만, 주변 환경을 개의치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자손은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의 성질을 예측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 속 어떤 변화에도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바꾸는 것도 할 수 없다. 유기체가 자신과 인접한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의 형태와 기능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적응은 유전의 제약과 비교하면 사소하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you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ies. Picture daisies and clover flowers in a lawn.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① differences. "Flower" co-categorizes the white and yellow types with the beige ones, and all the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Lawn" ② acknowledges the varieties of grass and all the nongrassy plants that are there. Zoom in, and you will find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③ alike, and yet they present to a quick glance a carpet patterned uniformly enough. For most practical purposes, the differences can be ④ ignored — making a daisy chain, sunbathing, and the like. Not so, however, for the groundskeeper of a sports stadium, where the constituent grasses and their stages of growth really do matter. And to an infinite mind, with infinite memory, each blade of grass,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need not be ⑤ co-categorized with all its fellows. Each could have its own name, as you yourself do.

* infinite: 무한한 ** blade: (식물의) 잎

고유 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명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의 상세한 사항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잔디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 떠올려 보라. 그 네 개의 보통 명사는 그것들의 차이를 생략한다. '꽃'이라는 말은 흰색과 노란색 종류를 베이지색 종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수많은 다른 종류와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어 버린다. '잔디'라는 말은 그곳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모든 풀이 아닌 식물을 무시한다. 확대해 보면, 여러분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데이지 두 송이도, 어떤 클로버 두 개도 정확히 같지 않지만, 재빨리 힐끗 한 번 보기에 그것들은 충분히 균일한 무늬의 카펫으로 보인다. 데이지 꽃 사슬 만들기나 일광욕하기 등과 같은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차이들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곳에서는 (잔디를) 구성하는 풀들과 그것들의 성장 단계가 실제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한한 기억력을 지닌, 무한한 정신에게, 각각의 풀잎은, 각기 고유한 생애 이력을 지닌 채, 그것의 모든 비슷한 것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듯, 각각은 자기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31.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These words,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s majors, are the kind that those who create art are unable to ignore. We worry about this idea that if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 then we are not professional; and if we are not professional,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and yet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visual artists measure canvases completed all in an effort to appear "productive,"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is then seen as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fensible. Of course one can engage in art, but it better be for money, for that is the only marker of success. But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merely an old talker with a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that had, in fact, labeled him as "successful"? In Western cultu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and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 Professional art, then, is inherently _____.

① universal ② individualist

③ romantic ④ collective

⑤ capitalist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이다." 졸업반 미술 전공생들에게 큰 권위를 가지고 전달된 이 말은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말이다. 우리는 만약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 생각에 대해 걱정하며,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을 예술가라고 심지어 부를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바로 그 본질상 수량화될 수 없거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쪽수와 단어 수를 세고, 시각 예술가는 완성된 캔버스 개수를 세는데, (이는) 모두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쩌면 창작하고자 하는 이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예술을 위한 창작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낭만적이고 거의 옹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사람은 예술에 종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인 편이 나은데, 돈이 성공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교수의 선언은, 직함을 가진 나이 든 수다쟁이가 사실상 그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붙여 준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가?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업성에서 전문성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예술가는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전문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32.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of the past unless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and stories, of necessity, are not neutral collections of facts. Stories are necessarily selective, subjective and attractive. The shortest of stories is the result of choices, conscious and unconscious. Stories influence subtly, invest power, make hidden moral judgement and always distort by omission,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This is why all educated citizens need _____. For we need to understand why history takes the form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s.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is not the same as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 it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s,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an 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s. Such disciplinary knowledge is not the same as 'everyday' knowledge and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 omission: 생략

① an ability to appropriate history for one's own ends

② not just facts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③ informal methods to record overlooked historical moments

④ disciplinary measures to maintain cultural particularity

⑤ a firm moral sense when reflecting on the past

과거의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사실들의 중립적인 모음집이 아니다.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며, 매혹적이다. 가장 짧은 이야기조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야기는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권력을 부여하며,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항상' 생략을 통해 왜곡하는데,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그러하다. 이것이 모든 학식 있는 시민에게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필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적 기술에서 역사가 왜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문적) 규율에 따른 역사적 논증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추상적 일반화에 대한 익숙함, 이전의 학문적 담론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논증 방식, 분석적 구조를 이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일상적' 지식과 같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습득될 것 같지 않다.

33.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space facilitates or prohibits, encourages or prevents, invites or inhibits. This choreography predetermines patterns of movement and behavior,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imageries, emotions and feelings. A sensitive and empathic designer intuits human behavior and desire, and this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 resonates with the actual user/occupant's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s. While designing a house, the designer lives, uses and feels the non-existent house in his imagination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A correctly placed window is located exactly where the occupant wishes to look out into the garden, or where daylight is needed. The stairway is located where the dweller wishes to enter the floor above or below. Successful architecture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for its use, as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A profound building is _____

_____

* choreography: 연출 ** intuit: 직관으로 알다 *** resonate: 공명하다

① an instrument to pass down cultural mindsets of its time

② a spatial logic made independent from nonprofessional opinions

③ an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④ an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designer's aesthetic preference

⑤ a structure whose outward appearance masks its function

모든 건축 구조물은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연출의 형태인데, 공간은 촉진하거나 금지하고, 권장하거나 막고, 초대하거나 억제한다. 이러한 연출은 움직임과 행동 양식을 미리 결정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험적 특성, 지각, 심상, 감정과 느낌을 유도한다. 세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계자는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직관으로 알며,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적 대본 쓰기는 실제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 및 의도와 공명한다. 주택을 설계하는 동안, 설계자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미래 거주자를 대신하여 존재하지 않는 집을 경험하고, 사용하고, 느낀다. 올바르게 배치된 창문은 입주자가 정원을 내다보고 싶어 하는, 또는 햇빛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설치된다. 계단은 거주자가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에 설치된다. 성공적인 건축에는 그것의 사용을 위한 설명서나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은데, 성공적인 건축은 무언의 방식으로 바로 그 구조와 용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심오한 건물은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행동과 능력의 연장이다.

34.

Think of the totality of your interactions where behavioral and interactional data is recorded and collected. All of those traces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It is accumulated over the long history of your recorded actions and choices, built up from traces left on everything from social media to credit reporting agencies, shopping websites and loyalty programs, courthouses, social welfare agencies, pharmacies, and the content of emails and chats. It incorporates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along with synthetic measures of your trustworthiness or accountability in the world. It is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and, of course,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But in principle it might be. It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that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 across many features — something that compactly represents your position in the multidimensional space of classification situations. It would, in short, _____.

* synthetic: 종합적인 ** condense: 압축하다

*** vector: 벡터, 방향량

① conceal your digital traces

② correct one's misconception

③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④ define what has exchange values

⑤ represent widespread social trends

행동과 상호 작용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여러분의 상호 작용 전체를 생각해 보라. 그 모든 흔적은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신용 조사 기관, 쇼핑 웹사이트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법원, 사회 복지 기관, 약국, 이메일과 채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구축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치와 더불어, 여러분의 사회 관계망에 있는 어떠한 가치든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물론 모두 단 한곳에 모이거나 단 하나의 양으로 압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많은 특징에 걸쳐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는 어떤 정보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즉 분류 상황의 다차원적 공간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무언가이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지을 것이다.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Morality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rational human beings for more than one reason. First of all, it is human beings who are gifted with the faculty of reasoning; secondly, human beings have free will to choose what is the best for them among many alternatives. ①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 i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uman mind as has been noted by all philosophers since Descartes. ②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to think and weigh the pros and cons of actions that human beings can plan for their future and make sufficient effort to achieve their chosen goals in life. ③ In other words, obsessing over advantages only and fixating on benefits lead human beings to make wrong choices. ④ Besides, human beings make free choices in all given situations, except where they are constrained to act. ⑤ Thus freedom is a basic feature of human life which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도덕성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이성적인 인간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이며, 둘째, 인간 존재는 많은 대안 중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선택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철학자가 주목했듯이 인간 정신의 주된 기능이다. 인간 존재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삶에서 선택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하고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이러한 능력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 존재는, 행동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 짓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36.

Daniel Dennett argues that one benefit of having moral considerations in our conceptual repertoire is that they can serve as *conversation-stoppers*: their value is to bring deliberations to a close. We are rational creatures, always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 and this is a trait that has served us well in many contexts.

(A) This is potentially as much a problem for our own private deliberations as for our public interpersonal ones. Dennett suggests that it is useful to have "consideration-generator-squelchers": items that, once introduced,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in its tracks.

(B) "That would be morally wrong!"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Once the claim is accepted then there is no need or room for seeking further justification: the action mustn't be done, even if it is tempting,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C) The problem is that upon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we can always sensibly respond "Okay, but what justifies *that*?" — and we can potentially do so endlessly, never coming to a decision, forever hesitant and doubting, undone by our own rational capacity. [3점]

* squelcher: (남을) 찍소리 못하게 하는 말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Daniel Dennett은 우리의 개념적 레퍼토리에 도덕적 고려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그것들이 '대화 중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그것들의 가치는 심사숙고를 끝내는 데 있다. 우리는 이성적인 피조물로, 항상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어 온 특성이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타당한 답변을 받자마자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무엇이 '그것'의 타당함을 보여 주는가?"라고 분별 있게 응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는 어쩌면 무한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결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망설이고 의심하며, 우리 자신의 이성적 역량에 의해 완전히 좌절하고 만다.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대인 간 심사숙고에서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사적인 심사숙고에서도 잠재적으로 문제이다. Dennett은 '고려 사항 생성기를 찍소리 못하게 하는 말'을 갖는 것이 쓸모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단 도입되면 어떤 그 이상의 심사숙고도 즉시 멈추게 하는 항목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거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일단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여지도 없고, 그 행동은 비록 솔깃해도 해서는 안 되며, 그저 그뿐이다.

37.

When the concept of *expansion* gets mentioned, it is difficult to resist the urge to picture the Universe with a finite and growing boundary. Our natural instinct is to wonder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

(A) In contrast to our inflating balloon or, say, a pipe leak that causes gas to spread into a room that exists in its own right, our expanding Universe is not spilling into another separate entity, nor even another dimension. It is the structure of space and time that stretches, a structure that has always existed, at least since the Big Bang.

(B) Unfortunately, the only answer I can give you is the one that I am sure will satisfy you the least, but let me say it anyway: the Universe expands into *nothingness*. To be more accurate, the Universe does not expand *into* anything. It simply expands by itself within itself.

(C) This structure or fabric of space and time is elastic and malleable. Just as it can pull us apart as we fall inside a black hole, it can also expand and cause anything and anyone embedded in it to move farther apart.

* inflate: 팽창하다 ** elastic: 탄력적인 *** malleable: 가단성이 있는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팽창'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면, 경계가 유한하고 늘어나는 우주를 상상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렵다.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우주가 가능한 한 어디로 팽창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여러분을 가장 만족시키지 못하리라 확신하는 답이지만, 그래도 말해보자면 우주는 '무(無)'로 팽창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주는 그 어느 곳'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팽창할 뿐이다. 팽창하는 풍선이나, 예컨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 안에 가스가 퍼지게 하는 파이프 구멍과는 다르게,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 또 다른 분리된 독립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차원 속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뻗어 나가는 것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구조, 적어도 빅뱅 이후로 항상 존재했던 구조이다. 공간과 시간의 이 구조, 혹은 조직은 탄력적이고 가단성이 있다.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질 때 우리를 찢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팽창할 수 있고 안에 파묻혀 있는 무엇이든 그리고 누구든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

38.

According to McNeil and Duncan, gesture is different from language in that it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with such choices.

Scholars have demonstrated that the gestures hearing people produce while they are speaking are systematically made at the same time with speech such that language and gesture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 This tightly integrated pairing of language and gesture enables speakers to conceptualize and formulate their thoughts in terms of both the "categorical" requirements of language, and the "imagistic" possibilities of gesture. (①) For example, in describing an event, one must decide if the event has been completed or is ongoing if the language being spoken at that moment has a verbal affix for each meaning and one or the other must be chosen. (②) This kind of choice is characteristic of language as a semiotic system. (③) Instead, it offers a kind of glue, which helps unite linguistic elements in a larger semiotic expression, which, as a whole, shares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 the represented objects. (④) In this view, speech and gesture are not redundant nor is one a "translation" of the other. (⑤) Rather, the minimal processing unit for the expression of thought is a combination of the two: it is "imagistic-categorial" in nature.

* affix: 접사 ** semiotic: 기호의

학자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청인)이 말하는 동안 보여 주는 제스처가, 언어와 제스처를 반드시 '공동 표현적'이라고 간주해야 할 만큼, 말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이러한 언어와 제스처의 단단히 결합된 한 쌍은 화자가 언어의 '범주적' 요구와 제스처의 '심상적' 가능성 두 관점 모두에서 자기 생각을 개념화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만약 그 순간에 말해지고 있는 언어가 각 의미에 대한 동사에 붙는 접사를 가지고 있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한 사람(화자)은 그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특징이다. McNeil과 Duncan에 따르면, 제스처는 화자에게 그러한 선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와 다르다. 대신에, 그것은 일종의 접착제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언어적 요소들을 더 큰 기호 표현 안에서 결합하도록 돕고, 그것은, 전체로서, 표현된 대상과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과 제스처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번역'도 아니다. 오히려, 사고 표현을 위한 최소 처리 단위는 이 둘의 결합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심상적-범주적'이다.

39.

Nonetheless, for most outsiders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s do not lift the veil behind which such forms of knowledge are hidden — 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and acquisition of skills, which often take many years,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being shared.

To acquire expert knowledge, one needs to become a member of the relevant group of knowledge bearers, for which I will use the term "epistemic communities." (①) A newcomer learns from experts and is socialized into the common practices of the relevant epistemic community. (②) Often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 combined with tests of a candidate's abilities. (③) In the premodern era, epistemic communities were often kept secret, with strict tests of loyalty for new members, not least because of fears that specialized knowledge would fall into the "wrong hands." (④) Some traces of these older practices may still be present today, but on the whole, the ideal has shifted to openness among the members of epistemic communities, and also, to some extent, toward outsiders. (⑤) Other,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make certain forms of knowledge as "accessible" as is realistically possible. [3점]

* transparent: 투명한 ** epistemic: 지식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 보유자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나는 '지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새로 온 사람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며, 관련 지식 공동체의 공동 관행에 사회화된다. 자주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시험과 결합한 입회 절차가 존재한다. 전근대적인 시대에는, 지식 공동체가 자주 비밀에 부쳐졌고, 신입 구성원에게 엄격한 충성심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래된 관행의 일부 흔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상(理想)은 지식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개방성,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는, 외부인을 향한 것으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투명한 관행조차도 그러한 형태의 지식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장막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데, 즉 자주 수년이 걸리는 관련 교육과 기술의 습득 없이는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rstensen's (1995)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looks at individuals' goals as a lifelong process that strengthens and matures with ageing. In relation to his motivational conceptual framework, Higgins (2014) proposes that motivation may even attain its highest levels in the later stages of life, subject to the balance and organisation of one's goals in relation to life prioriti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more recent research looks deeply into additional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later adulthood, particularly emphasising the role of self-worthiness, and the overall positive impact of developing a well-rounded self-view in life course transitions. Together, these studies suggest that both goal alignment and a positive self-perception are crucial for enhancing motivation and overall well-being in later life. In fact, third-age learners exhibit a higher degree of selectivity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which goals to pursue and how to allocate their resources towards those specific priorities. Older adults demonstrate a stronger sense of life purpose and self-fulfilment. They do it their way, and their way is an accumulation of winning and personalized combinations in effectively relating motives all together at different degrees according to their life contexts.

* alignment: 정렬

⬇

As goals mature over the course of one's life, older adults become more selective and ___(A)___ their goals according to priorities, sustaining motivation and well-being through a(n) ___(B)___ self-view.

(A)	(B)	(A)	(B)
① coordinate	····· objective	② coordinate	····· favorable
③ organize	····· inconsistent	④ disassociate	····· positive
⑤ disassociate	····· indefinite		

Carstensen(1995)의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은 개인의 목표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화되고 성숙해지는 평생의 과정으로 본다. Higgins(2014)는 자신의 동기 부여의 개념적 틀과 관련하여, 동기 부여는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개인 목표의 균형과 조직화 여부에 따라, 심지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더 최근의 연구는 성인기 후반부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특히 자아 존중감의 역할과 생애 과정 전환기에 균형이 잡힌 자기관을 발달시키는 것의 전반적인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종합해서, 이러한 연구들은 목표의 정렬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 모두 인생 후반에 동기 부여와 전반적인 안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제3 연령기 학습자들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그리고 그러한 특정 우선순위들에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정도의 선택성을 보인다. 노인들은 더 강한 삶의 목적의식과 자기 충족감을 보인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내며, '그들의' 방식은 그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모든 동기를 효과적으로 결부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고 맞춤화된 조합들의 축적이다.

41 ~ 42.

Writing of a commentary by Lenin on Leo Tolstoy, the critic Pierre Macherey agrees with Lenin's claim that Tolstoy's work holds up a mirror to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Yet this mirroring, Macherey argues, is a complex affair, by no means a direct reflection of the world as it stands. If literary works are in some sense mirrors, they are mirrors marked by flaws and blind spots. In fact, they are as significant for what they don't reflect — for their exclusions and distortions — as for what they do. There are things which do not and cannot figure in the mirror — in the case of Tolstoy, certain contradictions in society of which he could not be conscious. Even so, the mirror makes us aware of these absences, which thus become faintly present. It is as though it allows us to see more clearly what isn't there. There is also no reason to assume that what we see in the mirror must form a coherent whole. On the contrary, it may be in pieces and discordant. 'The mirror is doubtless defective; the outlines will sometimes be disturbed; the reflection faint or confused', remarks George Eliot in Adam Bede, reproaching the kind of naive realism which holds that art (or mirrors) always tell it like it is. A mirror offers us a version of reality, but it does so from a viewpoint which cannot be captured in the mirror itself. And because this viewpoint is invisible to us, we might be tempted to take it as beyond question.

Leo Tolstoy에 대한 Lenin의 논평에 관해 기술하며, 비평가 Pierre Macherey는 Tolstoy의 작품이 1905년 러시아 혁명에 거울을 비추고 있다는 Lenin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Macherey는 이러한 거울 비추기가 복잡한 일이며, 결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상(像)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문학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거울이라면, 그것은 결함과 사각지대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거울이다. 사실 그것은 그것이 비추는 것만큼이나 비추지 않는 것, 즉 배제와 왜곡으로 인해 중요하다.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데, Tolstoy의 경우 그가 의식할 수 없었던 사회의 특정 모순들이 그러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재를 인식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희미하게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우리가 그곳에 없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이 틀림없이 일관된 전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 또한 없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단편적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George Eliot은 Adam Bede에서 "그 거울은 의심할 바 없이 불완전하고, 윤곽은 때때로 흐트러질 것이며, 상(像)은 희미하거나 분명치 않기도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예술(또는 거울)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말해 준다고 믿는 종류의 소박실재론을 비난한다. 거울은 우리에게 현실의 한 버전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거울 그 자체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While taking a break from her daily housework, Cora scrolled through the internet and read a friend's response to a family's post. The grieving parents were asking for prayers for their 7-year-old daughter. Their daughter had a heart problem, so (a) she needed a heart transplant. Cora did not know the family or their daughter personally. However, they were from a small town called Appalachia which was also Cora's hometown.

(B)

Their daughter seemed to be a healthy girl until she suddenly collapsed. They found out that (b) her heart was failing. The doctors managed to get her stable but wanted her to remain close to the hospital in case of any complications and to await a donor. Knowing that the wait for a donor could take months, they worried about how they could afford to stay in the area as their home was four hours away from the hospital. Cora, unsure how much (c) she could really help but wanting to do more for the girl and her family, invited them to stay with her.

(C)

As she kept reading the post, she noticed that the family was in a nearby hospital. She sent a private message introducing herself and asked if there would be anything they needed. Soon, Cora heard back from the girl herself that (d) she would really like some apple butter, a local favorite in Appalachia. So Cora made some apple butter, and bought biscuits to eat it with. Then, she brought them to the hospital for the girl. Though they were total strangers, they felt an instant connection since they were from the same hometown. During the visit, Cora learned more about the family's situation.

(D)

Cora wanted to make sure the girl felt comfortable, so she let (e) her stay in the largest room in the house. Cora also prepared an extra mattress so that her parents could sleep nearby. The family was deeply touched by Cora's kindness and felt so grateful. Far from their friends and family, and forced to endure more than any family ever should, the family found a piece of home in Cora's. Her generosity showed that sharing the heart of a hometown created a friendship among strangers.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ora의 고향은 Appalachia라는 마을이다.
② 의사들은 소녀가 병원 가까이에 머무르길 원했다.
③ 소녀의 집은 병원에서 네 시간 거리에 있었다.
④ Cora는 비스킷을 직접 만들었다.
⑤ Cora는 추가 매트리스를 준비했다.

(A) 일상적인 집안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동안, Cora는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하다 한 가족의 게시물에 대한 친구의 응답을 읽었다. 슬픔에 잠긴 부모가 그들의 7살 딸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들의 딸에게 심장 문제가 있어서 그녀는 심장 이식이 필요했다. Cora는 그 가족이나 그들의 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Appalachia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그곳은 또한 Cora의 고향이었다.

(C) 게시물을 계속 읽으며, 그녀는 그 가족이 인근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고 무엇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머지않아, Cora는 그 소녀로부터 직접 그녀는 Appalachia의 인기 있는 지역 음식인 애플 버터 약간을 정말 먹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Cora는 애플 버터를 약간 만들었고, 같이 먹을 비스킷을 샀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들을 소녀를 위해 병원에 가져갔다. 비록 그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고향 출신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친밀감을 느꼈다. 방문하던 중, Cora는 가족의 상황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B) 그들의 딸은 그녀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건강한 소녀인 것 같았다. 그들은 그녀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의사들은 어렵사리 그녀를 안정시켰지만, 어떤 합병증에라도 대비하고 기증자를 기다리기 위해 그녀가 병원 가까이에 머무르길 원했다.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집이 병원에서 네 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을지 걱정했다. Cora는 그녀가 얼마나 정말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소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주기를 원하여, 그녀와 머물도록 그들을 초대했다.

(D) Cora는 소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녀가 집에서 가장 큰 방에 머물도록 했다. Cora는 또한 추가 매트리스를 준비해서 그녀의 부모님이 근처에서 잘 수 있도록 했다. 그 가족은 Cora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매우 감사했다.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리고 어떤 가족이든 한 번이라도 견뎌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어쩔 수 없이 견디며, 가족은 Cora의 집에서 고향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녀의 관용은 고향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